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 ▶ 1. 구이저우성, 도농주민 소득 증가 대책 시범 방안 발표
- ▶ 2. 산둥성, 르자오종합보세구(日照綜合保稅區) 설립 확정
- ▶ 3. 쓰촨성, 농식품가공단지 건설 강력 추진
- ▶ 4. 장쑤성, 문화와 여행의 융합 촉진
- ▶ 5. 중국 지방정부 국제 교류 동향

전춘복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구이저우성, 도농주민 소득 증가 대책 시범 방안 발표

- 2018년 7월 13일, 구이저우성정부 판공청(貴州省人民政府辦公廳)에서 『도농주민 소득 증가 대책 시범 방안(貴州省開展城鄉居民增收綜合配套政策試點實施方案)』(이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방안>은 2020년까지 도시·농촌지역의 누적 신규 취업자 수를 220만 명으로 증가시키고, 현 제도 기준 농촌 빈곤가정 제로화를 실시하며, 빈곤 현, 향진, 촌을 모두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1> 구이저우성 『도농주민 소득 증가 대책 시범 방안』의 주요 목표

구분	세부 목표
목표	① 도시와 농촌의 취업률을 점차 확대시켜 2020년까지 신규 취업자수 220만 명으로 증가 ② 실제 실업률과 등록실업률을 각각 5.5%와 4.2%이하로 통제 ③ 주민소득과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주민소득 성장률을 각각 8%, 10%로 유지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 비율 3:1 수준 유지

중점사업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점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 집약형 인력 장려 실시

- 기술직 인력을 위한 장려체계 마련
 - 전문기술원, 전문대학, 4년제 본과 학력 소유자, 기술학교나 중등전문학교 졸업자가 심사를 거쳐 관련 자격을 얻으면 기업의 보조설계사, 설계사, 고급설계사 기준에 맞게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2019년에 1~2개 성(省) 산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제도를 마련하고 관련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자격증, 학력 등 인증체계 마련
 - 전일제 고급기술학교, 기술사학원 졸업자가 공무원시험 응시, 기업체 채용 지원 등 방면에서 전문대나 본과 졸업자와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하고 별도로 취업보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 기술직 인력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마련

- 기술인재경연대회 3년 행동계획(技能人才競賽三年行動計劃)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이저우 장인(貴州工匠)』을 양성한다. 기업은 기술인력에 대한 대우체계를 설계사나 고급설계사와 동등하게 설정하고 호구이전, 주택구매, 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② 신흥 직업 농민 장려 실시

- 직업 농민을 양성하고, 산지특색이 있는 고효율 농업을 발굴하며, 빅데이터와 농업을 긴밀히 결합시키고, 개혁을 통한 소득증대 활동을 격려한다.
 - 2020년까지 500개 농업기업 정보 빅데이터화, 50개 농업물류기지 육성, 200개 농업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 추적시스템 장착, 촌 단위 전자상거래 서비스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③ 연구인력에 대한 장려 실시

- 과학기술분야 경비관리 강화
 - 연구기관에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지배권 부여, 직접 연구비 예산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로 인재혁신분야 지원을 실시한다.
- 연구결과 실질 활용 정도에 따른 분배체계 완비
 - 지식재산권의 창조, 보호, 운용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연구결과의 실제 활용 정도에 따른 성과배분으로 과학기술인력의 적극성, 자발성을 제고시킨다.

④ 중소기업 창업자 장려 정책 실시

- 상업제도 개혁 심화
 - 기업자본금 인증제, 등기등록제도 간소화 개혁 등 제도를 추진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2019년, 정부구매 분야에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귀향 농민공, 군인, 실업자, 빈곤가정, 장애인의 창업을 유도하며, 이러한 지원의 수혜대상을 2020년까지 6만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 성과이익 분배체계 설정
 - 대기업이 중소 창업자와 창업성과를 공유하도록 장려하고 중소 창업자의 창업혁신능력을 증대시킨다.
 - 2019년에 문화창의 분야의 혁신성과에 대한 보호방법을 제정하여 상업모형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한다.

⑤ 경제활동이 가능한 빈곤계층 취업활동 장려 실시

- 산업육성을 통한 빈곤탈출 강화
 - 대기업, 합작사(지역경제조직, 시민경제조직), 농가(시민)가 연합하는 빈곤탈출계획 수립, 혁신이익 공유체계 마련, 마을과 회사 매칭 등을 통한 빈곤탈출 노력을 실시한다.
- 기초생활보장 분야와 취업연동 체계 수립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초생활보장계층 관리, 빈곤계층 대상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한다.
- 최저생활보장 능력 향상
 - 4중 의료보장(四重醫療保障 : 빈곤가정의 환자가 4단계 의료보험 혜택 수급)제도를 보급한다.

⑥ 기업경영자에 대한 장려 실시

- 성내 국유기업의 관리자 장려 제도 재정비
 - 국유기업 대상 전문경영인 제도 마련, 공개채용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 내 중급관리자가 전문경영인에 도전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 민영기업가의 창업 격려
 - 대형 민영기업 중점 육성, 중소 민영기업의 창업경로 확대, 검찰장과 기업대표의 지속적인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해 비국유기업의 경영애로사항을 해소시킨다.

2

산둥성, 르자오종합보세구(日照綜合保稅區) 설립 확정

2018년 7월 10일, 르자오시는 지난 3년간의 신청노력을 거쳐 국무원으로부터 정식으로 르자오종합보세구 설립에 대해 확정받았다. 총 면적은 2.88km²이며, 산둥성 보세구 중 면적순으로 웨이팡(濰坊), 지난(濟南), 린이(臨沂), 동잉(東營), 웨이하이(威海)보세구 다음이다. 앞으로 약 1년간의 건설과 검수과정을 거친 후 정식사용 단계에 진입한다.



<그림1> 르자오 항구 모습

자료 : 르자오일보(日照日報)

- **지리적 장점** : 르자오보세구는 전체 면적의 절반정도가 르자오항 내부에 위치하고, 항구지역에 철도가 개설되어있다. 이밖에 『산업단지와 항구 연결, 육로와 해로연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르자오보세구는 해안선에서 800미터 떨어져 있고, 건설 중인 쿠이산(奎山)고속철역과는 11km, 르자오공항과는 18km 떨어져 있어 육·해·공 교통이 모두 편리하다.
- **설립취지** : 보세가공·물류를 특색으로 하는 보세구를 건설하고 보세서비스 수준을 높여 향후 르자오시 대외개방 통로를 개척한다.
- **기능** : 보세구는 보세가공, 보세물류, 화물무역, 서비스 무역, 해안서비스 등의 기능을 하게 되며, 보세구내 제조기업은 원료를 수입하여 보세가공 후 재수출하거나 국내 판매를 한다. 또한 국내 원재료를 보세구에 반입하여 가공 후 수출도 가능하다. 보세가공분야는 국내 또는 해외 원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 및 국제시장을 동시에 겨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보세구는 기업들에게 보세제품의 보관·배송과 수입·재수출을 위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물류비용 최저화와 기업이윤 극대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보세구에서 무역회사 등록이 가능해 기업들은 수출입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고, 세계 각지의 구입, 판매, 배송 등 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 보세가공, 보세물류, 화물무역 등 분야와 연관된 연구개발이나 설계, 제품테스트, A/S, 임대 등 서비스기업들도 국제해운센터, 구매센터, 화물보관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데 중국산원료는 세금환급, 수출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감면 등이 있다. 보세구내 창고 이용 시 화물의 종류나 보관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 2015년부터 르자오시는 『개방적 도시』를 주 전략으로 보세구 신청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제당업, 수산가공업 등 11개 업종과 보세물류 업종 19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업종 5개 등 총 35개 업종의 다수기업들이 보세구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3

쓰촨성, 농식품가공단지 건설 강력 추진

2018년 7월 25일, 쓰촨성 정부상무회의에서 『농식품가공단지 건설 강력 추진을 위한 의견(이하 <의견>)』이 통과되었다. 성, 시(주), 현(시, 구) 3급을 연동해 지역별로 농식품가공시범구를 건설하고, 우수 농식품가공단지와 특색 있는 농식품가공단지를 육성할 예정이다.

목표: 『의견』은 농업공급 구조 개혁, 농식품가공단지 건설을 강력 추진하여 2020년까지 200개 정도의 농식품가공단지를 건설하고 생산단지 능력 향상, 대기업 역량 강화, 혁신능력 제고, 지역발전의 선도자 역할 수행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표2> 『농식품가공단지 건설 강력 추진을 위한 의견』의 세부목표

항목	세부목표(2020년까지)
생산단지 능력 향상	연도별 영업이익 기준 500억 위안 단지 2개, 100억 위안 단지 10개, 50억 위안 단지 30개 육성
대기업 역량 강화	생산량 기준, 1,000억 위안 기업 1개, 100억 위안 5개, 50억 위안 기업 10개 건설
혁신능력 제고	과학기술 혁신플랫폼 100개, 성급이상 기업기술센터 100개, 벤처기업 50개 이상 건설
지역 발전의 선도자	원재료생산기지와 물류산업 발전 촉진 농촌 1, 2, 3차산업의 유기적 결합 촉진

중점사업

① 각 단지별 생산품목의 분포 규정

- 청두평원경제구(成都平原經濟區) - 곡류, 유제품, 주류, 조미료, 과일채소류, 스낵류, 중약재 등 가공산업
- 환남경제구(川南經濟區) - 식음료, 곡류, 축산, 피망, 과일채소류, 차, 중약음료 등 가공산업
- 환동베이경제구(川東北經濟區) - 과일채료류, 곡류, 축산, 수산물, 천명삼, 누에뽕, 목본유 등 가공산업
- 판시경제구(攀西經濟區) - 초봄의 채소, 특색과일, 차, 누에뽕, 호두, 피망 등 가공산업
- 환시베이경제구(川西北經濟區) - 유제품, 과일채소류, 쌀보리 등 가공산업

② 성, 시, 현 3단계 연동을 통한 농식품가공단지 발전 촉진

성급단위에서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시급, 현급 단위에서는 지방특색을 띤 개별기업을 육성한다.

③ 기반시설 건설 추진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도로, 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건설, 공장건축 표준 모델 개발 및 보급, 냉동물류와 건조시설을 갖춘 물류배송체계 마련, 교육훈련을 위한 공공시설을 마련한다.

④ 대외협작수준 제고, 투자유치 촉진

시장전망이 좋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선도기능이 우월한 항목을 발굴하여 산업단지의 발전을 촉진한다.

⑤ 농업분야 『선도기업(排頭兵)』육성 사업 추진

- 농식품 가공단지 내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혁신연구능력이 있는 벤처기업의 발전을 지원해 산업단지의 종합적인 발전을 유도한다.
- 『중소기업 온라인 혁신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판을 마련한다.

⑥ 기술혁신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

- 공공기술서비스시설, 연구중심, 실험실 등을 조속히 건설하고, 산, 학, 연이 공동으로 기술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클라우드서비스, 빅데이터, 모바일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이용하여 『지능형 공장』, 『생산라인 전산화』사업을 추진한다.

⑦ 『찬자호(川字號)』가공 농식품 브랜드화 추진

- 찬지우(川酒), 찬차(川茶) 찬차이(川菜) 등 쓰촨의 대표적인 농식품 브랜드를 육성해 전통 가공농식품의 지명도를 제고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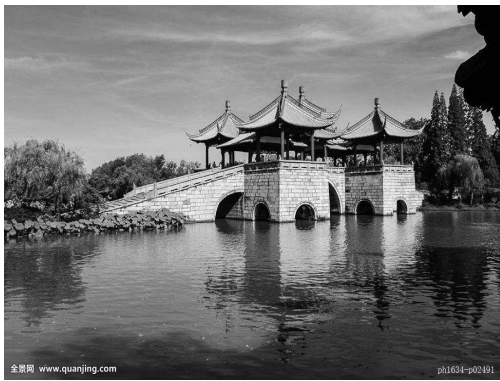
⑧ 1, 2, 3차산업의 융합 발전 촉진

- 대기업과 합작사, 원재료 생산기지, 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사업모형을 구축한다.
- 원재료 생산단지에 소수민족마을, 농업관광, 공업관광, 건강관광 등을 융복합하는 산업단지를 건설한다.

4

장쑤성, 문화와 여행의 융합 촉진

2018년 8월 2일에 열린 장쑤성 관광분야 공작회의(全省旅遊工作會)에서 2018년 1-6월 장쑤성 여행실적에 대한 외부 평가가 있었다. 전기 대비 13.5% 성장한 6,328.57억 위안의 관광 총수입 달성하였고, 전기 대비 9.5% 증가한 총 3.86억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장쑤성은 문화와 여행의 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그림2> 양저우 수서호(瘦西湖)



<그림3> 쑤저우 산탕거리(山塘街)

자료 : 중국사진백과(中國圖庫)

① 양질의 관광 프로그램 앞세워 여행객들의 소비유도

- 물은 장쑤지역 여행에 있어서 ‘혼(魂)’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11일 난징과 상하이 두 도시 간에 정기 여객노선이 신설되었고 난징시여행위원회는 앞으로 강변 경관 조성, 양안 일체화, 야경 조성을 통해 빈장(濱江)수상관광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 또한 타지 관광객들은 모두 하나같이 장쑤성의 관광교통의 우수성을 극찬한다. ‘대교통(大交通)’과 ‘소교통(小交通)’의 연결은 『장쑤속도(江蘇速度)』를 아주 잘 표현해준다. 교통중심지, 관광객 집결 센터, 주요 관광지 등 대교통(大交通)의 시발지점에서는 대중교통노선과 관광버스 노선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관광경찰지소 설립, 관광지 서비스센터 증설, 10분으로 고성 둘러보기 서비스지도 등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여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동방수성(東方水城)』 쑤저우(蘇州)는 올해부터 『여행총입구(旅遊總入口)』 종합여행서비스 위챗공중계정을 통해 14가지 공공서비스와 쑤저우여행 3종 상품을 선보였는데 이미 팔로워 수가 30만을 넘었고, 관광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였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지니 관광객의

발걸음은 느려지고 만족도는 높아졌으며 관광경제는 활성화 되었다.



<그림4> 장쑤관광 위챗 플랫폼

자료 : 저자 모바일 캡처 사진



<그림5> 종합여행서비스 체계

자료 : 장쑤뉴스

②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으로 관광의 다채로움 선사

● 장쑤성의 문화관광 분야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7월에 열렸던 성위원회 13기 4차 전체회의(省委十三届四次全会)에서 『문화관광산업의 감각을 키우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며, 대표성 있는 항목을 선출해 문화관광산업이 장쑤성 경제의 중요한 발판이 되게 한다』라고 발표하였다.

- 문화와 관광의 융합은 『천성일면(千城壹面 : 개별 특징이 없이 비슷한 형태로 만듦)』현상을 회피해야한다. 쑤저우의 옛 거리인 평강로(平江路)는 실크치파오가 유명한데, 이는 쑤저우특산물 실크와 자수문화(蘇繡文化)가 결합된 산물이다.
- 장쑤성은 여가휴식 공간, 문화교류 공간의 건설로 『슬로우 라이프(慢生活)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관광객 재방문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 홍색관광(紅色旅遊 : 혁명과 전쟁 역사가 담긴 여행), 무형문화재관광(非遺旅遊), 무형문화재전습소(非遺傳習所), 문화유적전시관(古籍展示館) 등 문화교육자원을 관광프로그램에 도입하여 문화체험의 다채로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그림6> 평강로 치파오가게와 장쑤성 지방극(呂剧) 교습소

자료 : 장쑤뉴스

- 장쑤성여유국(省旅遊局)은 관광산업의 융합발전시범기지로서 향후 대중들의 관광소비를 새로운 이슈로 만들것이라 선언하였다.

5

중국 지방정부 국제교류 동향

① 쓰촨성 동향(충남과 우호교류 체결 : 2008. 9. 5)

우호 쓰촨(友好四川) 동경속으로 들어가다

-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쓰촨성과 일본의 교류협작과 경제무역을 한층 활성화 하고, 양 국가간 민심상통을 위하여 쓰촨성 인민대외우호협회와 일본 이토요카도유한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우호 쓰촨(友好四川) 동경속으로 들어가다』 행사가 2018년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이토요카도 동경지점에서 개최되었다.



<그림7> 쓰촨성 특산품 전시·판매전

자료 : 쓰촨성인민우호협회

- 이번 행사는 쓰촨성 인민대외우호협회 2018년 『우호 쓰촨(友好四川)』 해외활동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쓰촨의 놀라운 매력』을 주제로 쓰촨관광문화 사진전, 쓰촨 특색음식 시식회, 쓰촨 특산품 전시·판매전, 쓰촨 전통문화공연, 팬더 전시 등 5개 영역에 걸쳐 펼쳐졌다. 아름답고 황홀한 쓰촨의 자연경치, 맵고 얼얼한(麻辣) 쓰촨 고유의 맛, 변화무쌍한 변검마술과 써커스공연

을 통해 쓰촨의 매력을 충분히 발산하였다. 이번 행사에 방문했던 일본인들은 마파두부나 탄탄면과 같은 쓰촨음식에 대해서 감탄했고, 쓰촨의 자연풍경, 명승고적, 소수민족 풍속, 국보동물 판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② 상하이시 동향(충남과 우호교류 체결 : 2008.11.3.)

제6회 한중일 아동 우호 미술전 개최

- 2018년 7월 28일, 상하이시 소년궁에서 한, 중, 일 3국의 상하이시인민대외우호협회, 일본사회교육단체(碧波會), 한국부산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6회 한중일 아동 우호 미술전』이 개최되었다.
- 『한중일 아동 우호 미술전』은 2013년을 시작으로 벌써 6회가 진행되었으며, 올해 미술전은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다. 각국 주최 측에서는 연초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기관을 통해 공모와 선발을 거쳐 100개 작품을 선발하였으며 총 300개의 미술작품이 전시되었다. 개막식에서는 한중일 아동들이 각각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그림8> 미술전에서 그림그리기, 전통공연 연출 모습

자료 : 소후닷컴(搜狐)

③ 헤이룽장성 동향(충남과 자매결연 체결 : 2015. 1. 28)

헤이룽장성 성장이 타타르공화국 행정장관을 만나다

- 2018년 7월 11일부터 12일 이틀 간 왕원타오 성장은 성정부대표단을 이끌고 타타르공화국을 방문했다. 방문기간 중 행정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인민정부와 소련 연방 타타르공화국 무역통상, 과학기술분야 합작 협의(中華人民共和國黑龍江省人民政府與俄羅斯聯邦鞏固斯坦共和國政府關於經貿、科技和文化合作協議)』를 체결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속히 헤이룽장성과 타타르공화국을 잇는 직항노선을 개통하고, 담당부서를 만들어 구체적인

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림9> 레이룽장성과 타타르공화국 행정관 회담 진행

자료 : 헤이룽장성인민정부(黑龍江省人民政府)

참고문헌

貴州省人民政府, 貴州省開展城鄉居民增收綜合配套政策試點實施方案

http://www.gzgov.gov.cn/xwdt/djfb/201807/t20180716_1447190.html

(검색일 : 2018년 7월 15일)

山東省人民政府, 日照綜合保稅區正式獲批

http://www.shandong.gov.cn/art/2018/7/10/art_2066_159937.html

(검색일 : 2018년 7월 16일)

四川省人民政府, 關於大力推動農產品加工員區發展的意見

<http://www.sc.gov.cn/10462/10771/10795/12400/2018/3/7/10446616.shtml>

(검색일 : 2018년 8월 1일)

江蘇省人民政府, 加速文旅融合, 旅遊發力“優質”拉長產業鏈

http://www.jiangsu.gov.cn/art/2018/8/2/art_60096_7771014.html

(검색일 : 2018년 8월 6일)

四川省人民對外友好協會, “友好四川”走進東京--首屆“四川文化周”活動在日成功舉辦

<http://www.sifa.org.cn/article-630-1.html> (검색일 : 2018년 8월 6일)

上海市人民政府外事辦公室, 第六屆“中日韓友好兒童繪畫展”開幕 (검색일 : 2018년 8월 10일)

http://www.sohu.com/a/244006637_665334

黑龍江省人民政府外事辦公室, 王文濤訪問韃靼斯坦共和國並會見行政長官明尼哈諾夫

<http://www.hljfao.gov.cn/newsshow.php?cid=3&id=868&lanmu=1> (검색일 : 2018년 8월 8일)